"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분명히해야"

김승환 교육감 확대간부회의서 밝혀… 실명 공개는 법리검토 후 결정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원칙임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2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국가로부터 받은 돈은 지원금이건 보조금이건 형식이 어떤 것이냐에 상관없이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립유치원을 감사하고, 징계의결·집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시도교육청이 아무리 감사를 한다한들 사립유치원들이 무시하면 그만"이라면서 "사립학교 족벌경영체제 개선 등 사립학교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더욱이 김 교육감은 "현재 일정부분 입법 공백과 해석의 여지, 관련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감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대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사립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유치원 회계 및 복무·인사관리 등을 포함한 종합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여부는 법리검토 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사립유치원 현장지원 연수는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우리교육청은 지난 몇 년간 사립유치원 원장·교사연수에 심혈을 기울여왔다"면서 "앞으로도 교원직무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전북체육 위상' 드높인 전북체고, 금메달 12개 획득… 지난해 성적 뛰어넘어

지난 18일 막을 내린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전북체육고등학교(전북체고) 선수들이 선전을 하면서 전북체육 위상을 드높였다. 이에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의 활약상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2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 익산 등 도내 일원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전북 선수단은 선전에 선전을 거듭, 종합3위를 달성했다.

전북은 종합득점 49,751점을 획득, 경기와 서울 이어 종합 3위를 달성했다. 메달 현황을 보면 금메달 59개, 은메달 68개, 동메달 96개 등 총 22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처럼 당초 목표였던 종합 3위를 기록한 가운데 고등부에 출전한 전북체고 선수들의 활약이 눈길을 끌었다.

전북체고는 이번 대회에 총 16개 종목 154명이 출전했고, 금메달 12개, 은메달 7개, 동메달 26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이는 지난해 충북에서 열린 전국체전의 성적(금 6개·은 6개·동 19개)을 훨씬 뛰어넘은 것으로 금메달은 2배나 더 획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육상과 수영, 체조, 역도, 사격, 양궁, 자전거, 레슬링, 복싱, 태권도, 펜싱, 테니스, 근대5종 등 일부 종목이 아닌 고른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했다는 것이다.

육상 세단뛰기에 출전한 유규민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16m23cm를 기록, 대회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기록은 고등부가 아닌 일반부에서도 메달권에 들어가는만큼 좋은 기록으로 알려졌다.

양궁의 이우혁 선수는 거리 90m 경기에 출전해 332점을 쏴 대회 타이기록을 기록했다.

수영의 조재승 선수는 자유형 50m와 배영 5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2관왕에 올랐고, 육상 이희영과 이지영, 체조(평행봉) 진현, 수영(접영200m) 백기표 선수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체조 조원빈과 역도 한병하, 태권도 황희정 선수 등은 은메달을 전북 선수단에게 선물했고, 양궁 이용빈, 레슬링 윤유민, 자전거 김나연 선수도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북체고 조성운 교장은 "선수들이 고향에서 대회가 열린만큼 그 어느때보다 최선을 다해줬다"며 "도민들의 응원이 있기에 선수들이 힘을 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마이스터고에서 미래를 열다

전북기계공고 등 4곳… 이달 26일까지 접수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2일부터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 신입생 입학전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이스터고는 2008년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계획'에 따라 전략산업 분야에 필요한 핵심기술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로 특성화고나 일반고 직업반과 함께 직업계고로 분류되며 유명분야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해 기술중심 교육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특성화고와 다르다.

도내 마이스터고는 군산기계공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한국경마축산고, 전북기계공고 등 모두 4개교로 26일까지 원서 교부 및 접수를 실시한다. 면접 등 전형은 오는 31~11월 2일, 합격자는 11월 5일 발표한다.

군산기계공고의 경우 2017년 97%, 2018년 93%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며 4년제 대학 진학시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는 종자·식품 산업에 종사 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다양한 해외연수를 지원한다.

한국경마축산고는 국내 유일의 말산업 분야 마이스터고로 미래의 말산업 발전을 주도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현장 맞춤형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호주, 일본 등 글로벌 현장 체험학습을 운영한다.

전북기계공고는 기계분야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창의적인 기계 기술 인재를 육성을 목표로 하며 지난 9월 전국학생로봇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년 취업난이 극심한 요즘, 마이스터고의 매력도가 높아졌다"며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 몽골 사법기관과 '맞손'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소장 송문호 교수)가 몽골 주요 사법기관들과 긴밀한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 한국 법문화를 동북아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의 역할이 기대된다. 송문호 소장은 최근 몽골을 방문해 사법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사무총장, 대검찰청 차장, 법무연수원장 등 몽골의 7개 주요 사법기관을 예방해 몽골 사법기관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법학과 법조 실무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 우호적인 의견을 나눴다.

또한 양 국가의 법문화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몽골 사법위원회와 국립법률연구소, 몽골 국립대 로스쿨, 법조협회 등 4개 기관장과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기관들은 연구와 교육활동 확대와 연구진의 교환 방문, 학술지 발전 및 정보교환 등을 촉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능정보사회의 법과 윤리'와 관련한 학술연구와 자료 교환, 인적 교류 등 세부 연구 분야에 대한 협력을 약속해 실질적인 학술교류 성과가 기대된다.

특히 몽골 법조협회와 대검찰청은 몽골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실무가들이 한국에서의 특별 연수과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고, 전자발찌 도입 등 형사상 사회 내 처우에 대한 노하우 경험 기회와 한국 법률실무의 현장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또한 대법원장과 동급으로서 모든 몽골법원들의 예산과 인사를 관할하는 사법위원장도 양국의 학술지 상호 교환과 연구자 상호 방문 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가 기대된다.

송문호 동북아법연구소장은 "몽골의 주요 사법기관들과의 이번 협정은 환황해권 중심에 있는 전북대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고, 동북아법을 특성화하고 있는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향후 한국법문화를 동북아 국가에 수출하는 전진기지로서의 동북아법연구소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청소년 자율주행차 체험 캠프 큰 호응

전북대학교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가 호남권역 중·고교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19~20일 자율주행차 체험 캠프를 열었다.

이번 캠프는 신산업의 중요 기술과 발전 역사 및 핵심 이슈를 교육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공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창의적 공학 마인드 확산을 위한 것. 학생들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주행시스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캠프에서는 전북대 전자공학부 이종열 교수가 ▶아두이노 개발 환경 및 프로그래밍 ▶센싱 및 구동 기술 이해 ▶자율주행시스템 구동을 위한 이론 및 실습 ▶팀별 프로젝트: 자율주행시스템 Mission(라인 트레이싱 및 장애물 회피 경주) 등의 프로젝트를 교육했다. 이를 통해 논리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팀워크, 자기주도 학습을 완성해 학습 성과를 극대화했다.

뿐만 아니라 전북대 공대학생 10여 명을 매칭해 교육 활동 및 이공계 진학에 대한 진로 지도, 전공교과과정 소개 등에 대한 멘토링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고, 팀별 미션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선택의 확대 및 도전정신을 함양 할 수 있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평소 할 수 없었던 경험을 할 수 있었고, 팀 활동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자율주행로봇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다"며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전북대학교에 오게 된다면 내가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청소년들에게 멘토링을 할 수 있는 튜터도 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북대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를 위해 호남·제주 권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창의기술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해마다 신산업과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질을 높이고 있으며, 이공계 분야에 재능 있는 중고교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과학교육원에서 19일 '음악이 흐르는 가족사랑 별빛 여행'을 운영했다.

전북과학교육원, 음악이 흐르는 가족사랑 별빛여행 성료

도민가족 150여명 참여

전북과학교육원(원장 김영찬)에서는 19일 '음악이 흐르는 가족사랑 별빛 여행'을 운영했다.

올해 들어 8번째로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도민가족 150여명이 참여해 특별한 추억거리를 만들었다.

돔형 스크린으로 새롭게 개관한 천체투영관에서는 현악 4중주 연주를 들으며 태양계와 우주의 다양한 천체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천문공작시간에는 가족끼리 힘을 모아 천체망원경을 만들어 직접 달과 화성을 바라보면서 가을밤을 즐겼다.

행사에 참여한 김수연 학부모(익산시 어양동)은 "천체투영관에서 현악 4중주로 연주되는 스타워즈 음악을 들으며 밤하늘의 별들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별들이 내려오는 것 같아 너무 즐거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